

# 성폭력·도박 ... '요지경' 광주교도소

### “男·男 성폭력” 고소장 접수 ... 검찰·경찰 수사 등기우표 이용 카드·스포츠토도 도박 주장도

최근 광주교도소에서 재소자 간 성폭력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또 재소자들끼리 등기우표를 이용해 각종 도박을 벌이고 있다는 주장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도대체 광주교도소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24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재소자 B씨는 지난 6월 초 대낮에 광주교도소 목공 작업장에서 같은 재소자 A

씨와 작업용 가위로 위협한 뒤 성폭행했다는 고소장을 최근 접수했다. 아울러 재소자 C씨는 같은 내용을 알고 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수감 중인 A·B씨 등을 상대로 성폭행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서 A씨는 성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여부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B씨) 몸을 만지

고 입맞춤을 한 것은 맞다. 하지만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반면, B씨는 “네 차체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교도소측도 이들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한 뒤, A씨에게 징계를 내린 상태이며 향후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성폭력 뿐만 아니라 광주교도소 내에서 또 다른 불법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광주지검도 최근 교도소 재소자들이 1770원짜리 등기우표를 이용해 카드나 스포츠 토도 도박을 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진정서가 접수됨에 따

라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소자 C씨는 진정서에서 등기우표가 사실상 현금이나 다름없는 교도소에 이를 활용한 도박이 벌어지고 있다고 적어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광주교도소 관계자는 “재소자 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성폭행 여부를 놓고 서로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재소자들이 도박을 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금시조문이다”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alee@kwangju.co.kr

# 광주시 6급 공무원 소환 문서위조 윗선 개입 추궁

### 광주지검, 일단 참고인 신분 ... 다른 공무원 1명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공문서 위조 사건과 관련해 유치위원회 관계자가 24일 오후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국일)는 이날 오후 3시40분께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위원회 6급 공무원 한모(여·44)씨등 공무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22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수사외의 공문을 받았으나 수사외의 대상자가 ‘유치위원회 관계자’로 특정 인물이 명시되지 않아 실무자인 한씨 등을 참고인 성격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세계수영대회 유치위원회 실무자였던 한씨를 상대로 국제수영연맹에 제출한 정부 보증서를 위조한 경위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한씨가 정부 보증서를 위조하면서 총리와 장관의 사인을 가짜했다는 점에서 윗선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가 관심이 될 전망이다.

또 이날 유치위원회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서류를 검찰에 임의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친구들이 잘 가” 사실 해병대 캠프에 참여했다가 숨진 충남 공주시대부고 학생들의 영결식이 24일 학교 운동장에서 진행됐다.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는 친구를 마지막으로 배웅하고 있다. /연합뉴스

# ‘태안 해병캠프’ 관련자 4명 추가 영장

### 해경, 수련시설 운영 대표 등

충남 태안군 안면도 사설 해병캠프 고교생 5명 사망사고 관련자 4명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이 신청된다.

이번 사고를 수사 중인 해경 수사 본부는 수련시설 운영사인 H사 대표 오모(50)씨와 영업이사 김모(49)씨,

K여행사 대표 김모(49)씨와 사설캠프 대표 겸 K여행사 감사 김모(48)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번 사고로 인한 구속자는 캠프 교관 3명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늘어 나게 된다.

/연합뉴스

# 광동제약 창업주 최수부 회장

### 골프장에서 숨진 채 발견

광동제약 창업주인 최수부(78) 회장이 강원도 평창의 한 골프장 사우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4일 평창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0분께 평창군 대관령면의 한 골프장 사우나에서 최 회장이 쓰러져 있는 것을 종업원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일행과 부부 동반으로 골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뛰는 사기범 위에 나는 사기범

### 대출 사기범에 통장대여 750만원 빼낸 20대 검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광주에 사는 김모(23)씨는 지난 1월 초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통장을 사고 판다는 광고를 접한 뒤 이모(34)씨에게 전화를 걸어 통장을 개설해 줬다.

김씨는 자신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준 대가로 이씨로부터 20만 원을 받았다. 이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통장거래가 정지된 이씨가 통장을 산 이유는 대출 사기를 저지르기 위해서였다.

김씨는 통장 개설 직후 공인인증서를 얹고 재발급 받았다. 또 별도로 폰뱅킹 서비스도 신청, 이

씨에게 건넨 통장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자신의 휴대전화에 문자 메시지가 오도록 해왔다.

김씨는 이후 이씨에게 폐기된 공인인증서·통장 등을 건넸고 이를 알지 못한 이씨는 지난 1월 7일 대출 사기를 통해 현금 75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입금 소식은 김씨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달됐고 이씨가 인터넷 뱅킹에서 폐기된 공인인증서로 돈을 빼내려고 허둥지둥대는 사이, 김씨는 폰뱅킹을 통해 현금 750만 원을 빼내갔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이씨는 처벌을 감수하고 김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광주동부경찰은 22일 김씨를 사기 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종형기자 galee@kwangju.co.kr

# 절도범, 벌금 내려고 또 훔치다...

○...절도로 신고 받은 벌금을 납부하려고 모텔에서 컴퓨터를 훔친 20대 남성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끝내 교도소행.

○...24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오모(26)씨는 지난 8일 오전 11시께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 H모텔 객실에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컴퓨터 1대를 훔쳤다가 검거.

○...오씨는 지난해 12월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컴퓨터를 훔쳐 벌금을 내려고 했는데, 180만원이 부족해 수감됐고 또다른 절도죄로 가중처벌될 전망이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 금호동 ‘금호육교’는 왜 빨리 철거됐을까?

### 철거 시급한 육교 4곳은 3년 지나도 그대로 ... “민원 많아 빨리했다” 광주시 설명 이해 안 돼

‘금호육교’ 철거를 놓고 고개를 갇혀서 있는 사람들이 많다.

철거가 애초 계획시점보다 수년이 나 빠르다 이뤄진 탓이다. 광주에는 철거 시기를 3년이나 넘긴 육교가 4개나 있으나 예산 등의 이유로 그대로. 여기에 금호육교는 철거가 2016년~2025년으로 잡혀있었기 때문에 뒷말이 나오고 있다.

24일 광주시와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길이 32.3m, 폭 3.4m, 높이 5m 강관교인 금호육교가 지난달 29일 철거됐다. 올 들어 4번째 육교 철거였다. 육교를 철거한 자리엔 횡단보도가 놓였다. 광주시가 임산부, 노약자 등 교통 약자가 이용하기 어려워 애물단지라 된 시내 75개 육교를 모두 철거기로 입장을 정함에 따른 것이

다.

그러나 금호육교는 지난 2008년 광주시가 세운 ‘보도육교 철거 및 횡단보도 복원’ 계획시안 해도 주요간선 도로가 아니라는 점, 보행자 안전과 차량 소통에 큰 지장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16~25년 사이에 철거할 ‘장기철거 대상’에 속했다.

지난 2008~2010년까지 철거 예정이었던 단기철거 대상 육교인 북구 등 서산·양산육교, 광산 도산·송정육교 등 4곳은 3년이 지나도록 철거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 간 이격거리는 200m지만 현재 금호육교가 철거된 자리에 들어선 횡단보도는 앞·뒤 횡단보도와 15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다.

금호육교는 철거가 급한 시설이 아닌 점, 철거후 놓인 횡단보도 위치의 적정성이나 효과가 의심되는 점 등에 비춰보면, 민원 제기가 많아 철거했다는 시측의 답변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특허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하자없이 20년은 너끈히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태양열차단, 냉기차단  
여름철 실내온도 3~5°C, 겨울철 실내온도 3~5°C  
전기료 30~40%, 난방비 15~20%

냉·난방문제! 방수와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사 전속모델 탈렌트 이영 후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

# 건물매매

## 순천법원 정문, 농협 뒷 건물

- ▶ 대지 143평, 건물 480평, 2012년도 신축
- ▶ 5층 건물(1층 82평, 2~5층 100평)
- ▶ 감정가/시세 - 24억원
- ▶ 임대 - 보3억원에 월1,600만원 (임대 중)
- ▶ 대출 - 14억원(이자 월560만원)
- ▶ 매매가 - 24억원
- ▶ 수입 - 7억원 투자에 월 1,040만원
- ▶ 주인 직매함, 010-3605-5000